

제 1 교시

국어 영역 (A형)

1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정 : 병민아, 어디 가?
 병민 : (고개를 돌리며) 어, 소정아. (잠시 뜬을 들이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니? 독서실이나 가야지.
 소정 :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
 병민 : (한숨을 쉬며) 응. 아버지랑 진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답답해.
 소정 : ㉠ 왜? 너 요리사가 되는 거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셨다면?
 병민 : 그랬지. 그런데 주말에 모임 갔다 오시더니 요리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생각이나 하라고 하시잖아.
 소정 : ㉡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랬구나. 참 속상하겠네.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떡볶이 사 줄까?
 병민 :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내 입장이라면 넌 어떻게 하겠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께서 반대하신다면.....
 소정 : 글썄.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한번 부딪쳐는 볼 것 같은데..... 그런데 병민아, ㉢ 너희 아버지가 왜 반대하시는 것 같아?
 병민 :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요리사가 되더라도 쉽게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 내가 얼마나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 넌 잘 알잖아?
 소정 : ㉣ 그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병민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니?
 병민 :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지 좀 [A] 더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소정 : 그래. 바로 그거야. 네 생각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봐.
 병민 :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요리사가 되는 걸 정말 허락해 주실까?
 소정 :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 꼭 허락해 주실 거야.

1.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다.
- ② ㉡ :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 ⑤ ㉤ : 관용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격려하고 있다.

2. [A]를 고려할 때, '병민'이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드릴게요. 꼭 일류 요리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 ② 진로 문제는 저에게 맡겨 주세요.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③ 제가 아버지께 실망스런 모습을 자주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이 될게요.
- ④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⑤ 지금까지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것 같아요.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 방과 후 요리교실에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해저터널이 완공되는 날입니다. 해저터널 완공까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현장 책임자를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 장: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이 많았던 만큼 공사 기간 내내 부담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소 장: 공사를 맡은 날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 대단히 큰 공사였기에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해저터널은 2년 전 완공된 ○○해저터널보다 얼마나 더 길죠?

소 장: 950m 정도 더 길니다.

진행자: 대단하군요. 해저터널 공사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소 장: 공사 방법만 놓고 보면 육상터널 공사와 비슷하지만, 해저터널 공정은 물막이 공사가 까다로웠고 공사 후에도 물이 내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해저에서 하는 공사라서 수압으로 인해 물막이 공사뿐만 아니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려웠다는 말씀이군요.

소 장: 아, 그리고 바다에는 '약선'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약선은 지층이 어긋나 불안정한 곳을 말하는데, 이 구간을 지나는 공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 ① 진행자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소장의 말화 내용을 다시 언급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사회적인 관심사를 언급하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 ④ 소장은 용어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소장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중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회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6.9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46.3개월인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편입니다.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폐휴대전화의 재활용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 대비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가정이나 직장의 책상 서랍에 폐휴대전화를 묵

혀 두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휴대전화에는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땅속에 파묻으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잠시 보시죠. (폐휴대전화에서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김△△ 박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준다.) 잘 보셨죠? 이처럼 버려지는 휴대전화 속에는 금속 자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귀중한 자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학생회 간부들과 모임을 하고 우리 학교 학우들과 함께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매마침 구청에서도 폐휴대전화를 원활하게 모을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수거한 폐휴대전화는 구청에서 처리업체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폐휴대전화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이다. ㉠~㉥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발표 계획서>

- ▷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해야겠군. ㉠
- ▷ 휴대전화 판매량에 비해 폐휴대전화의 재활용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겠군. ㉡
- ▷ 폐휴대전화의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학우들에게 알려야겠군. ㉢
- ▷ 폐휴대전화에서 금속 자원을 추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술 부족을 언급해야겠군. ㉣
- ▷ 학우들에게 폐휴대전화 모으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군.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② 재치 있는 말을 사용하여 청중들과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③ 도입부에서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 ④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청중들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 ⑤ 내용의 일부를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6.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칭찬은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칭찬을 들은 아이는 계속 칭찬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칭찬은 과제에 대한 아이의 집중력도 높여 준다. 아울러 아이의 자긍심을 고양하여 올바른 성품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조건]

- [자료]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①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행복해 한다. 칭찬은 학교생활에 지친 아이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 ②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수준의 칭찬은 아이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도 있다.
- ③ 칭찬은 아이를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이는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걸어가기보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 ④ 칭찬은 마치 감미로운 음악과 같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자란 꽃은 그렇지 않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피기 때문이다.
- ⑤ 칭찬은 성공 가능성만을 고려해 과제를 선택하게 한다. 어떤 과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칭찬 받을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7~8]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요의 초안

주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내용 전개	서론: 자전거 이용의 실태 ㉠
	본론
	1. 문제의 원인 분석
	ㄱ. 제도적 측면 ㉡
	ㄴ. 시설적 측면 ㉢
	2. 문제의 해결책 제시
	ㄱ. 제도적 측면 ㉣
	ㄴ. 시설적 측면 ㉤
	결론: 정부의 노력 촉구

(나) 글의 초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철도나 자동차에 비해 오래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용이 줄어들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혜택의 부재 등이 있다. 또한 자전거 주차 공간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한 현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7.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 (나)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통계 자료

국가별 연간 자전거 생산량 (단위: 만 대)

독일	221
이탈리아	219
네덜란드	90
한국	2

㉡ 신문 기사

△△시는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영 자전거를 빌려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민 공영 자전거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인터뷰 자료

"대부분의 국민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가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 ① ㉠을 활용하여, (가)의 '서론'에서 '자전거 생산의 현황'을 언급하고, (나)의 첫째 문단에서 자전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② ㉡를 활용하여, (가)의 '본론-2-ㄴ'의 하위 항목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을 추가하고, (나)의 셋째 문단에서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를 활용하여, (가)의 '본론-1-ㄴ'의 하위 항목으로 '시민 공영 자전거제의 운영 부재'를 추가하고, (나)의 둘째 문단에서 자전거 주차 공간 문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를 활용하여, (가)의 '본론 1, 2'의 하위 항목으로 'ㄴ. 의식적 측면'을 각각 추가하고, (나)의 둘째와 셋째 문단에 국민의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를 활용하여, (가)의 '본론-1-ㄱ'의 하위 항목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가하고, (나)의 둘째 문단에서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부족한 원인으로 제시한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시청 홈페이지에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건의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2014년 6월 XX일

○○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의 성공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쓴이 이은지

제목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에서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지난 토요일에 역사 동아리만 친구들과 ○○시를 방문했던 학생입니다. ○○시에 가 보니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쓰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라 때 창건된 전통 사찰도 얼마 전에 불타 버렸고, 임진왜란 때 왜적들을 물리쳤던 △△ 장군의 생가 복원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존 가치가 높은 고택이나 근대 문화유산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문 인력과 예산도 많이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역사 문화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 문화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더 이상 ㉤내버려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보기>는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활용한 전략이다. (나)에 적용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비유법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부각한다.
- ㄴ. 화제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ㄷ. 내용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ㄹ. 통념을 비판함으로써 예상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어색하므로 ‘시장님께’ 다음에 ‘급히’라는 부사어를 추가한다.
- ②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므로 ‘생각을 했습니다’로 고친다.
- ③ ㉢은 문단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바꾼다.
- ④ ㉣은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가므로 ‘개발’로 바꾼다.
-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내버려두거나’를 삭제한다.

11. <보기>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 보 기 >

-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음절 끝에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 된소리되기: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ㄹ, ㄺ, ㄻ, ㄼ), ㄷ(ㅌ,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국밥[국뽵] ② 단는[단는]
③ 덮개[덥개] ④ 공권력[공편력]
⑤ 불이다[부치다]

12. <보기>의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 ‘접문장’이 있다. 접문장에는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전자는 홀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홀문장과 홀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①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다.
- ② 함박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③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
- ④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13.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에서 ‘큰’은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진 ‘사자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 ㄱ.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 ㄴ.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 ㄷ. 수리를 하고 나니 새 가구가 되었다.
- ㄹ.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 ㅁ. 그의 빠른 일처리가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

형용사

관형사

- | | | |
|---|---------|---------|
| ① | ㄱ, ㄷ | ㄴ, ㄹ, ㅁ |
| ② | ㄱ, ㅁ | ㄴ, ㄷ, ㄹ |
| ③ | ㄴ, ㄹ | ㄱ, ㄷ, ㅁ |
| ④ | ㄱ, ㄷ, ㅁ | ㄴ, ㄹ |
| ⑤ | ㄴ, ㄷ, ㄹ | ㄱ, ㅁ |

1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의 변화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따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형태 변화	의미 변화
+	-
-	+

..... ㉠

..... ㉡

※ ‘+’: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 ① ㉠: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 ③ ㉠: 우리 집은 오랫동안 마소를 길렀다.
- ④ ㉡: 서너 명이 모여 모듬을 만들었다.
- ⑤ ㉡: 소나무의 꽃은 5월에 핀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보 기 >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이 지저분해서 청소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엄마가 아들에게 “방 정리 좀 해라.”처럼 명령형 어미 ‘-(아/어)라’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① (자율학습 시간에 반장이 떠드는 학생에게)
반장: ㉠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되네.
학생: 미안해. 조용히 할게.
- ②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엄마: ㉡ 내일 학교에 안 가니?
아들: 그만하고 잘게요.
- ③ (소나기가 올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 우리 손자 우산 안 가져왔지?
며느리: 제가 우산 들고 마중 갈게요.
- ④ (사장이 실수가 잦은 사원에게)
사장: ㉣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죠?
사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⑤ (주말에 동생이 언니에게)
동생: ㉤ 뮤지컬 함께 보러 가자.
언니: 내일 시험 있어서 갈 수 없어.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라는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원만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이다. 운 좋게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될 수도 있지만 매번 이러한 요행을 바랄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을 ‘대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이다. 전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없애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방법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고 부른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방어기제에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의식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억압’,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거나 불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합리화’ 등이 있다. 합리화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 원래 그 목표 달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신 포도형’,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고 믿는 ‘달콤한 레몬형’,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구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정당화하는 ‘망상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거짓말이나 변명과 달리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다. 방어기제는 대

[A] 체로 실패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여 긴장과 불안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방어기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를 기만하며 고통스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할 뿐이다.

16. 밑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위층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위층에 사는 어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주말과 저녁 시간에는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다.

(나) 철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마시고 싶은 음료수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았다. 동전 반환 버튼을 눌렀지만 동전도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

- ① (가)의 은희와 (나)의 철수는 바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② (가)의 은희가 성적 저하의 원인을 위층의 소음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 ③ (가)의 은희가 위층 주인에게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면, 이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 ④ (나)의 철수가 원래부터 음료수를 그다지 먹고 싶지 않았다고 위안 삼았다면, 철수는 ‘신 포도형’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 ⑤ (나)의 철수가 자동판매기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료수를 받았다면, 철수는 스트레스를 일으킨 상황을 해결한 것이다.

18. [A]를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어기제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 ③ 방어기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적인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④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방어기제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을 더 선호한다.
- ⑤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보다 방어기제가 더 효과적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팩시밀리리는 문서를 읽은 다음 그 내용을 신호화하여 전화 회선으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신호를 복원하여 다시 문서로 읽어내는 기기이다. 흑백 팩시밀리리를 예로 들어 팩시밀리리의 송신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내는 쪽에서 문서를 팩시밀리리에 넣으면, 문서가 조금씩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발광 다이오드가 문서에 빛을 쏘인다. 빛은 흰색에 반사되고 검은색에 가까워질수록 더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읽게 된다. 가로 방향의 한 행에 빛을 쏘여 문서를 읽고, 이 작업이 끝나면 세로 방향으로 문서를 옮기고, 다시 다음 행에 빛을 쏘는 방식으로 문서를 읽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문서의 전체 면에 빛이 쏘이게 되어 문서의 정보를 신호화하게 된다. 이때 문서 전체는 가로 세로가 약 0.1mm 정도의 미세한 화소(畵素)로 잘게 쪼개지는데, 화소의 크기가 작을수록 원본에 가까운 문서를 얻을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가 쏘인 빛이 문서에 닿은 후 반사되면, 이미지 센서라는 장치에서 이 반사된 빛의 정보를 읽는다. 이미지 센서는 가로 방향의 화소와 같은 수로 대응하는데, 화소마다 반사된 빛의 세기에 따라 이미지 센서에 전류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다. 즉, 어떤 화소가 흰색이면 전류가 생기고, 검은색이면 전류가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문서에는 흰색이나 검은색 이외에 회색 부분도 있고, 하나의 화소에 흰색, 검은색, 회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분명하게 식별하기 힘든 화소는 일단 회색이라고 해독한 뒤 그 회색이 일정 수준보다 짙으면 검은색으로, 얇으면 흰색으로 판단하는 ‘이치화(二値化)’ 작업을 거치게 된다. 흰색이나 검은색 이외의 화소는 이치화 작업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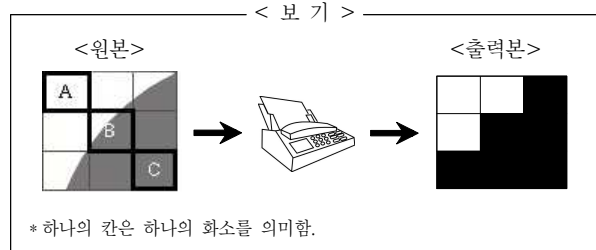
화소 단위로 얻은 전기신호를 그대로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전화 회선으로 보내기 전에 부호화 처리를 한다. 즉, 정보를 압축하기 위해 조작을 하는 것이다. ‘흰색’을 “흰색 흰색 흰색…….”이라고 100번 연속해서 말하는 것보다 “흰색 100번”이라고 말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처럼 같은 색의 화소가 연속될 경우에 정보를 압축하여 읽기 때문에 문서를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한편 수신하는 쪽의 팩시밀리리는 받은 전기신호를 바탕으로 화소를 분석하여 보내온 문서를 재현하게 된다.

* 이미지 센서 : 빛을 쏘인 대상의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19. 윗글의 ‘팩시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신호를 바탕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기기이다.
- ② 흰색이나 검은색의 화소는 이치화의 과정을 거친다.
- ③ 문서 전체를 미세한 화소로 잘게 쪼개어 정보를 신호화한다.
- ④ 문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정보를 압축하는 부호화 처리를 한다.
- ⑤ 이미지 센서의 전류 생성 여부는 화소마다 반사된 빛의 세기에 따라 다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소의 색을 판단하는 단계는 A보다 C가 복잡하다.
- ② 발광 다이오드가 쏘인 빛은 B보다 A에서 더 잘 흡수된다.
- ③ 화소당 면적이 줄수록 <출력본>은 <원본>에 가까워진다.
- ④ B와 같이 화소의 흑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일단 회색으로 해독한다.
- ⑤ C가 <출력본>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난 것은 일정 수준보다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읽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문서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문서가 들어가는 방향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想定)하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보이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감정적인 존재라고 보며,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고 본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며, 현실에 ㉢실재(實在)하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휴리스틱’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잘 보여준다.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주먹구구식의 어렵짐작을 말한다. 휴리스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준점 휴리스틱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기준점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제한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폭탄 세일! 단, 1인당 5개 이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한 사람의 구입 한도를 5개로 제한하면 1개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도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5라는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감정 휴리스틱은 이성 아닌 감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뜻한다. 수많은 제품에 ‘new, gold, 프리미엄’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정 휴리스틱을 활용한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 대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성’으로 설명한다. 손실 회피성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더 크게 생각하여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 원이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비슷한 주식이 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천 원을 얻는 만족보다 천 원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손실을 능가하는 충분한 이익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편향(偏向)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손실에서 느끼는 불만족은 이익에서 얻는 만족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한다.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좋은 ㉥단서(端緒)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 손실 회피성을 보인다.
- ② 휴리스틱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③ 사람들은 손실보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④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현실에 실재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⑤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을 2배 이상 크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23.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신제품에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상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연상하게 하는 경우
- ② 친숙하고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쉽게 수용하게 하는 경우
- ③ 시장에 일찍 진입하여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소비자가 그 업종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경우
- ④ 정가와 판매가격을 같이 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판매가격으로 샀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
- ⑤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던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기회를 준 다음에 제품의 구입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2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최후통첩 게임’은 두 명의 참여자 A, B가 1회에 한해 돈을 분배하는 게임이다. A가 분배 액수를 제안하고 B가 이를 수용하면, A의 제안에 따라 돈이 분배된다. 하지만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두 사람은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한 결과, ㉦많은 A들은 상대방에게 최소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만약 A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면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B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A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많은 B들은 20% 이상의 몫을 제안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했다.

- ① ㉦가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을 하는 것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
- ②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③ ㉧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겠어.
- ④ 기존의 경제학에서 보면 ㉦는 합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⑤ 40% 이상의 액수를 제안하는 ㉦의 행동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기존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겠어.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토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음
 ② ㉡ : 어떤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③ ㉢ : 실제로 존재함
 ④ ㉣ : 한쪽으로 치우침
 ⑤ ㉤ :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대 그리스의 음악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이 ‘영혼’이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음악이 인간의 성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내세웠던 **에토스(ethos)***론이다.

그리스 인들은 음악이 영혼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리스 인들은 특정한 리듬이나 선법(旋法)*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정한 영혼의 상태와 상응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도리안 선법이 만 들어내는 조화로운 기운이 그에 상응하는 인간 영혼의 조화로운 기운을 직접 이끌어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음악에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선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그리스 인들은 음악의 목적이 윤리적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품에 미치는 가치로 음악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동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였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신체를 위한 교육과 영혼을 위한 교육을 들었다. 그는 훌륭한 영혼이 훌륭한 신체를 만든다고 보아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중에서도 음악이 어떤 예술보다도 인간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음악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음악 교육도 도덕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했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론은 플라톤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스럽고 좋은 음악을 통해 선한 인간이 길러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선과 덕을 지향하지 않는 음악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플라톤은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음악의 존재 이유를 인정했지만, 아리스

토텔레스는 오락과 지적 쾌락으로써의 음악적 가치도 중시했다. 또 인간은 누구나 공포나 광란 같은 격한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 **비슷한 성격의 음악을** 듣고 동종의 감정을 자극하고 환기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배설하여 과도한 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에토스(ethos) : 음악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적 작용 또는 그 힘.

* 선법(旋法, mode) : 으뜸음을 기준으로 한 음정 관계에 따른 음계 구성음들의 다양한 배열 방식.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1>에 대한 반응을 <보기 2>에서 찾았을 때,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1 > —

- (가) 음악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아름다움이고 목적이며, 결코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나) 음악을 통한 교육은 덕성을 함양하는 데 매개가 되므로, 좋은 음악을 사회에 널리 알려 사람들을 교화하여야 한다.
 (다) 음악의 목적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사람들이 사랑, 미움, 욕망, 환희, 슬픔 등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

— < 보 기 2 > —

- ㄱ. 플라톤은 (가)에 반대하면서, 교육 수단으로의 음악적 가치를 강조하겠군.
 ㄴ. 플라톤은 (나)에 동의하면서, 음악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겠군.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에 동의하면서, 좋은 음악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겠군.
 ㄹ.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다)에 동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옹호하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7.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험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잔잔한 명상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네.
 ②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받아서 우울했는데, 신나는 록 음악을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지네.
 ③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었는데, 경쾌한 댄스 음악을 들으니 더욱 행복해지네.
 ④ 주어진 일이 잘 마무리되어 만족스러웠는데, 부드러운 재즈 선율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네.
 ⑤ 친한 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슬픈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실컷 울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 호르몬의 하나인 에틸렌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이며 쉽게 산화하는 성질이 있다. 에틸렌은 식물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먼저 에틸렌은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의 성숙을 유도한다. 과일의 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에틸렌이 합성되어 과일을 성숙하게 하고, 성숙한 과일은 에틸렌을 더 많이 만들어 낸다. 이처럼 ㉠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 작용해 그 결과를 촉진하는 것을 ‘양성 되먹임’이라 한다. 에틸렌은 기체이므로 같은 공간에 있는 여러 과일에 전달되어 과일을 더 잘 익게 한다. 이와 달리 과일의 성숙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에틸렌은 줄기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어두운 곳에서 배양되어 싹이 튼 완두가 토양 속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돌에 부딪치면, 줄기의 맨 위쪽 부위가 자극을 받는다. 이때 완두는 에틸렌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에틸렌에 의해 ‘삼중반응’이 일어난다. 삼중반응은 줄기의 신장 속도 감소, 줄기를 굽게 하는 측면 비대 성장, 줄기를 옆으로 자라게 하는 휘어짐이 모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식물의 줄기는 ‘물리적 자극 → 에틸렌 합성 → 삼중반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에틸렌은 식물 성장 과정에서 삼중반응을 일으켜 줄기가 장애물을 피해 가게 한다. 그러나 장애물이 사라지면 줄기의 에틸렌 합성은 감소하고, 줄기는 다시 위쪽을 향해 정상적으로 자란다. 이때 줄기에 삼중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 자체가 아니라 에틸렌이다. 물리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어린 식물에 에틸렌을 처리해도 삼중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애기장대*를 관찰하다가 정상적인 애기장대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의 돌연변이체도 같이 발견했다. 첫째 유형은 에틸렌에 반응하지 않는 돌연변이체이다. 이 돌연변이체는 에틸렌 수용체를 지니고 있지 않아 에틸렌을 처리해도 삼중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유형은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도 삼중반응을 보이는 돌연변이체이다. 이들은 에틸렌 합성과 조절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경우보다 20배나 많은 에틸렌을 합성한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체에 에틸렌 합성 억제제를 처리하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간다. 셋째 유형은 항상 삼중반응을 보이는 돌연변이체이다. 이들은 에틸렌 합성 억제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에틸렌 신호 전달 경로에 이상이 생겨 에틸렌이 없어도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항상 삼중반응을 보이는 돌연변이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생물학자들은 정상적인 유전자의 기능을 알게 되었으며, 식물 조직 내부의 효소와 에틸렌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호 전달 경로를 추정해 나갔다.

* 애기장대: 십자화과에 속한 두해살이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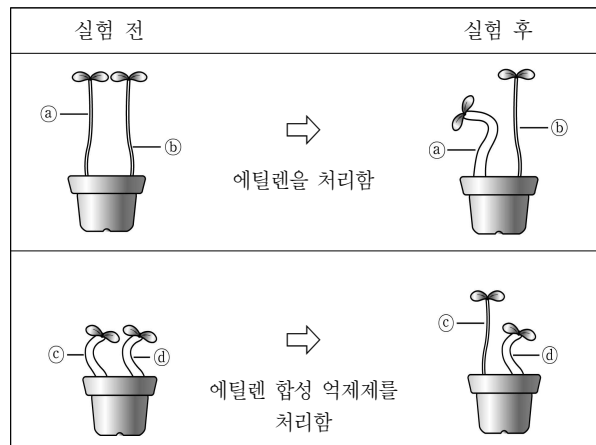
2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싹이 튼 완두가 장애물을 만나면 줄기의 신장 속도가 감소한다.
- ② 과일의 성숙 과정에서 에틸렌과 이산화탄소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 ③ 삼중반응이 일어난 완두에 장애물을 제거하면 위쪽을 향해 정상적으로 자란다.
- ④ 덜 익은 과일만 있는 곳에 잘 익은 과일을 두면 덜 익은 과일이 더 늦게 익는다.
- ⑤ 생물학자들은 돌연변이체 연구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유전자의 기능을 알게 되었다.

29. ㉠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방기의 설정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지면 냉방기가 작동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게 된다.
- ② 정부가 청년 실업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더니 청년 실업률이 떨어졌다.
- ③ 한낮에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의 증발로 인해 구름의 양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대기는 차가워진다.
- ④ 마라톤 선수가 근력이 떨어져 체력 강화 훈련을 하였더니 근력이 다시 좋아져서 기록이 향상되었다.
- ⑤ 헌혈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헌혈 받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30. 다음은 [A]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에틸렌의 합성과 조절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체군.
- ② ㉡은 에틸렌 수용체를 지니고 있지 않은 돌연변이체군.
- ③ ㉢은 정상인 경우보다 20배나 많은 에틸렌을 합성한 유형이군.
- ④ ㉣은 에틸렌 신호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긴 유형이군.
- ⑤ ㉢과 ㉣은 물리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삼중반응이 일어나는 유형이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알록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훔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켜테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나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 호개: 호가(胡歌). 만주인들의 노랫소리.

* 불술기: '기차'의 함경도 방언.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연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시에는 일제강점기 유이민들의 상황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시적 상황이 시 속의 인물인 '나'와 '가시내'의 행위를 통해 한 편의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① '알록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는 '가시내'가 과거에 바닷가에 서 살았음을 '나'가 추측한 것이다.
- ② '어디서 훔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를 통해 현재 '나'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켜테'에는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담겨 있다.
- ④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는 '가시내'의 한스러운 현재 심리 상태가 표출된 것이다.
- ⑤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서는 고난에 맞서려는 '나'의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에서 ㉡으로 왔다.
- ② ㉡에서 살았던 '가시내'는 두만강을 건너 ㉢으로 왔다.
- ③ ㉢에서 '가시내'를 만난 '나'는 '가시내'에게 연민을 느낀다.
- ④ '나'는 '가시내'가 ㉢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⑤ '나'는 '가시내'와 함께 ㉢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는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 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문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 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건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짜 되는지요?”

【종락 줄거리】 교사인 ‘나’가 건우네로 가정 방문을 다녀온 후 몇 달이 지나 그 해 처서 무렵, 유례없는 홍수로 낙동강이 범람하고 섬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나’는 건우네 걱정예 조마이섬으로 향하던 도중에 윤춘삼 씨를 만나 건우네 소식을 듣게 된다.

바로 어제 있던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 둔 엉터리 독을 허물어 버린 얘기였다.

—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독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엉락없이 온 섬이 폐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발새 영감이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혹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 섬사람들이 한창 독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 독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췌 현장에 나타나더니, 독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마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할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독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드시피 물

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긴커녕 그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췌친 친구가 되레 갈발새 영감의 뺨이를 와락 뺏더니 물속으로 쾅 집어 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속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발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자를 들어 물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이고’ 소리도 못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돌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발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독이 완전히 몽개지고, 섬을 치췌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몽그적몽그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 살인 죄라니 우짜문 좋겠능지요?”

게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별건 눈에서는 어느덧 땀방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① 나는 이방인(異邦人)처럼 윤춘삼 씨의 강강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래 처음이니 뭍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해 구체 의연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넘은 갈발새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 학기가 되어도 건우 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整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설두: 앞장서서 일을 주선했.

* 강강한: 얼굴이 몹시 어둡어 날카롭게 보이는.

* 정지(整地): 땅을 반반하게 고름.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른 인물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시점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사건을 병렬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정환의 작품에는 폭력적 성격을 띠는 ‘권력의 의지’와 이에 대항하는 ‘삶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 두 의지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충돌하는데, 그러한 충돌은 천재지변이 계기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나 거친 행동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 ① 엉터리 독은 주민들을 섬에서 쫓아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권력의 의지’에서 비롯되었군.
- ② 섬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홍수는 결국 두 의지를 위협하는 자연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두 의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발새 영감의 거친 행동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군.
- ④ 갈발새 영감과 청년들이 구사하는 비속어는 두 의지가 충돌하는 현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군.
- ⑤ 유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청년들은 두 의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군.

36. ㉠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② 윤춘삼의 말을 듣고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하고 있다.
- ③ 유력자들과 섬사람들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 ④ 섬사람들의 고통을 듣고만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섬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 직접적인 대꾸를 꺼리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든 남들은 웃는다 한다면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쫓나물을 알마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제2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임이 온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제3수>

내 성(性)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서서
인간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 윤선도, 「만흥(漫興)」-

* 향암: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37. 윗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에 변화를 주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 ②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사용하여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8. [A]에서 먼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족감을 주는 친화적 공간이다.
- ②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 ③ 살아온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다.
- ④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⑤ 유교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 은거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슬하계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 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①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띠집’과 ‘보리밥 쫓나물’에서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남들’에는 작가를 탄핵하고 모함했던 정적들이 포함될 수 있겠군.
- ③ 작가가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향암’ 같은 존재가 되었겠군.
- ④ ‘알마초’, ‘슬카지’ 등과 같은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이군.
- ⑤ ‘여남은 일’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겠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생의 친척 중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생이 장씨 집에 몸을 의탁하러 가니, 장 노인은 주생을 매우 관대하게 맞아 주었다. 주생은 비록 몸은 편했지만, 선화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이렇듯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봄이 돌아왔는데, 그해는 바로 만력 20년 임진년이었다. 장 노인이 주생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묻자, 주생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 이에 장 노인이 말했다.

“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왜 일찍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 처가 노 승상과 동성(同姓)으로, 그 집안은 대대로 우리와 통혼했던 사이다.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혼사를 추진하겠다.”

이튿날 장 노인은 아내 노씨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늙은 하인을 전당에 보내어 혼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선화는 주생과 이별한 이후 침상에 누워서 지리한 세월을 보내니, 어여쁜 얼굴이 몹시 야위고 초췌해 있었다. 부인도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고 싶었으나 주생이 이미 떠나 버렸기 때문에 어쩔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 노씨 부인의 편지를 받고 온 집안이 놀라며 기뻐하였으며, 선화도 억지로 침상에서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니 예전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집안은 그 해 9월에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생은 날마다 포구에 나가서 선화네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채 열흘이 못 되어 하인이 돌아와 정혼한 뜻을 전하고, 선화가 손수 쓴 편지를 주생에게 주었다. 주생이 편지를 뜯어보니, 분 향기가 나고 군데군데 떨어진 눈물자국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주생은 편지지만으로도 선화의 슬픔과 원망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박명환 여인 선화는 정성을 다해서 주랑께 글월을 올립니다. 언덕 위의 푸른 버들을 볼 때마다 임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가지 위에 앉은 피꼬리 소리를 들을 때면 새벽의 꿈길에 몽롱하더니, 하루아침에 고운 나비는 정을 전하고 백학은 길을 인도하여, 동산에 달 휘영청 밝은 저녁 낭군님은 담을 뛰어넘어 내 방에 찾아와서 깊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느 때들 변할 리 있었겠습니까마는 뜻대로 되지 않는 애달픈 심정은 그지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약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몸은 절로 야위어 갔습니다. 님이 떠난 뒤 봄은 다시 찾아왔지만 고기는 물속으로 숨고 기러기는 날아가 버렸으며, 빗줄기는 배꽃을 때렸습니다. ① 날이 저물면 문을 닫고 온갖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었으니, 제 몸이 이렇듯 수척하게 된 것도 모두 낭군 때문입니다.’

【중략 줄거리】 선화의 편지를 받은 주생은 반가운 마음에 선화와 혼인을 앞당기려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장 노인에게 요청하여 그 편지를 다시 전당에 보내려고 한다.

이때 조선이 왜적의 침략을 받고 매우 다급하게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과 조선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이웃 나라이므로 그

나라가 위급함을 보고 어찌 돕지 않을 수 있으랴! 만약 조선이 패배하면 압록강 서쪽은 편히 잠잘 수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여송 장군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도와 왜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절강 지역 여러 고을에서 다급하게 병사를 징발하였다. 이때 유격장군은 본래부터 주생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주생을 불러들여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 주생은 사양했으나 장군이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기의 임무를 맡았다.

이듬해 계사년 봄에 명나라 군사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추격해 왔다. 주생은 선화를 한시도 잊지 못하다가 병이 들어서 군대를 따라 남하하지 못하고 송도에 머물렀다.

내가 마침 일이 있어 송도에 갔다가 객사에서 주생을 만났다. 그러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써만 마음을 통할 수가 있었다. 주생은 내가 글을 안다 하여 매우 극진하게 대우하였는데, 내가 병이 나게 된 까닭을 묻자 주생은 슬픈 표정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비가 내려서 나는 주생과 함께 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주생이 ‘답사행’ 한 수를 지어 나에게 보여 주었다.

외로운 그림자는 의지할 곳 없고,
이별의 회한은 토로하기 어려운데,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기러기는 강가 나무숲에 이르렀네.
이미 객사의 희미한 등불에 마음 설레었으니,
어찌 다시 황혼에 내리는 빗소리를 감내하리?

[A]

낭원(蘭苑)*은 구름이 아득하고,
영주(瀛州)*는 바다에 막혔으니,
옥루의 구슬주렴은 어디에 있는고?
외로운 발자취 물 위의 부평초 되어,
하룻밤 사이에 오강(吳江)으로 떠가길 바랄 뿐.

내가 이 시를 손에서 놓지 않고 두세 번 읽어 시 속에 담긴 연정을 알아냈다. 그러자 주생은 감히 속이지 못하고 내가 앞에 썼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와 이별하였다. 그는 재삼 나에게 사례하면서 간절히 부탁하였다.

“다른 사람에게에는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 시가 아름다웠던 탓인지 그들의 기이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와 붓을 잡고 이 이야기를 쓴다.

— 권필, 「주생전(周生傳)」—

* 낭원, 영주: 신선이 사는 곳.

40. 밑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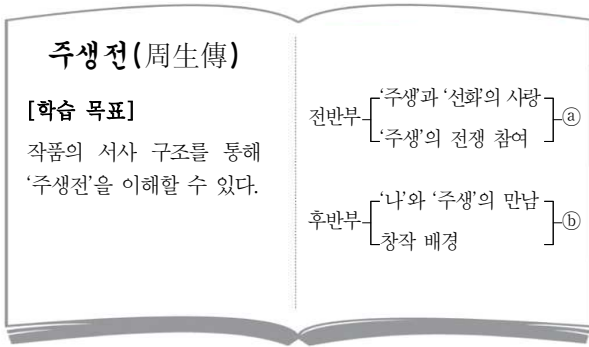
- ① 주생과 선화의 혼인은 전쟁으로 인해 좌절된다.
- ② 선화는 주생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회생을 감수한다.
- ③ 유격장군은 주생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서기로 임명한다.
- ④ 장 노인은 주생과 선화의 결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⑤ 명나라 황제는 자국의 안위를 위해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다.

41. [A]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 ② 주인공의 위기를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 ③ 주인공이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의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주인공의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42. 다음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중심인물이 ㉡에서는 주변 인물이 된다.
- ② ㉠이 ㉡에 비해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③ ㉠에서 표출된 인물 간의 갈등이 ㉡에서 해소된다.
- ④ ㉠과 ㉡ 모두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다.
- ⑤ ㉠과 ㉡ 모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논평한다.

4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군분투(孤軍奮鬪)
- ② 사고무친(四顧無親)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 ④ 전전긍긍(戰戰兢兢)
- ⑤ 진퇴양난(進退兩難)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바닷가 마을에 살던 해순은 남편 성구가 바다에서 죽자 시어머니의 배려로 같은 마을에 살던 상수를 따라 산에서 살게 된다.

S#152. 성철의 집

머리에 수건을 땀 어머니가 허탈하게 앉았고 성철은 마당에 돛을 내놓고 손질하고 있다.

어머니 에이그…… 그 돛은 와 만지노…… 나는 배타지 마라!

성 철 바닷놈이 배 안 타고 뭇 탈 껌니꺼…….

어머니 이젠 바다가 무서워서 안 카나…… 이려다간 대가 끊기것다…… 네 형수만 있어도 좋으련만…….

성 철 형수 걱정은 마소…… 상수도 형수를 껌적이 생각하고 있을 껌니더…….

한숨을 쉬는 어머니

S#153. 토담집 앞(밤)

모닥불이 타오른다. 가마니를 깔고 상 없이 밥을 먹고 있는 해순과 상수.

상 수 그렇게 바다가 보고 싶나?

해 순 …….

약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상 수 잊어버려라! 성구를 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 버린 곳이 바다가 아냐…… 잊어버려. 우린 산에서 사는 거다…… 아무도 없는 데서 단둘이서 말야…….

해 순 잊으려 하면 생각이 더 납니더……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예-.

상 수 걱정할 것 없다. 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철이도 배를 타는데…….

해 순 (향수에 젖어) …… 수수밭에 가면 수수대가 모두 미역밭 같고…… 콩밭에 가면 콩밭이 원통 바다로 안 보이는교…….

상 수 …….

어처구니없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동정적인 모습으로 해순을 본다.

해 순 (울먹해지며)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로 들리는 기라예…… 오늘 낮에도 바다가 보고 싶어 산에 올라갔습니더 …… 갈매기 소리는 들리는데 바다는 안 보입니더 …….

상 수 그만두자아…… 해순이…….

조용히 해순이를 감싸 안으면서

상 수 잊자! 잊어버리고 나랑 단둘이서 살자.

【종막 줄거리】 상수는 해순을 괴롭히던 채석장 관리인을 쫓아 가다가 발을 헛디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S#168. 무덤(비)

한결 세어진 빗줄기. 비를 맞으며 상수를 어루만지는 해순- 급기야 상수의 시체를 밀어 넣는다. 행여 빗물에 잠길세라 마

구 흙을 덮는 해순. 빗발이 더욱더 세어지고- 해순의 옷이 젖는다. 흙을 덮어 놓은 해순은 그 자리를 밟는다(봉분을 만들 수는 없다). 누런 황토를 밟는 해순의 발- 빗물에 범벅이 된 황토는 해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이 수렁이 된다. 빗물에 젖은 해순의 몸은 나신이나 다름없다. 마구 우는 해순이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비바람 속에 잠겼음인지 들리지 않는다.

S#169. 산길(비)

해순이가 비를 맞고 걷는다. 은은히 들려오는 '과부 타령'의 허밍 코러스*.

S#170. 산꼭대기(비)

올라서는 바위에 앉는다. 들려오는 허밍 코러스의 과부 타령.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들리는 파도 소리. 거품을 물고 일어 오는 파도의 환청. 해순은 귀를 막고 아우성친다. 소리는 안 들린다.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 해순은 조용히 일어서서 산을 내려온다. O.L.

S#171. 들길

보통이를 옆에 끼고 걷는 해순.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다.

- 신봉승 각색, 오영수 원작, 「갯마을」-

* 허밍 코러스: 민요의 후창처럼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것.

4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수는 해순과 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 ② 성철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 ③ 해순은 산에서도 바다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 ④ 해순은 상수가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한다.
- ⑤ 어머니는 성철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45. 밑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각 장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52: 성철의 마지막 대사는 어머니의 상심을 달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한다.
- ② S#153: 해순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는 상수를 의식하는 표정으로 연기한다.
- ③ S#153: 해순을 바라보는 상수의 시선을 통해 상수의 복합적인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한다.
- ④ S#168: 해순이 흙을 밟는 모습에서는 상수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일어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S#168: 해순이 오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울음소리는 강한 비바람 소리에 묻히게 하여 해순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